



# 손에 잡히는 R&D

[2016-3호]

## 제 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및 계획

- 1. 개요 ..... 1
- 2. 추진방향 ..... 2
- 3. 세부 실행계획 .....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략 기획 본부 기획예산실



# 제 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추진방향 및 계획<sup>1)</sup>

## 1. 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부·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5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중장기 상위계획과 연계해 수립되기 때문에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농식품 분야 R&D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농식품 분야는 국가 과학기술 분류 상, '생명'으로 구분되며, 생명분야 최상위 계획인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하위에 위치한다.

제 1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난 5년 동안(2011년~2015년) 농림식품 부·청의 전체 예산은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R&D예산은 연평균 5.9%씩 확충되어 농림식품 R&D 투자가 지속되고 과학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농식품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67.4% 수준에서 2014년 76.1%로 크게 향상되었다.<sup>2)</sup> 특히 골든시드프로젝트(2012~2021년)를 통한 종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09년 10월), 한국임업진흥원(2012년 1월) 등을 설립하여 부·청간 R&D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관리·실용화 등 주요 기능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R&D 정보의 통합관리와 일원화 된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2012년부터는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그 외 지식재산권 획득 및 기술이전, 시장진입 지원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2012)' 및 '신기술인증제(2014)' 등 민간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초기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제도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양적으로 R&D 투자는 확대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1차 종합계획을 통한 R&D 투자가 주요산업(7대 산업분야, 20대 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가축분뇨로 인한

1) 「제 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을 요약하여 재정리 함.

2) 2009년은 미국, 2014년은 미국과 네덜란드 공동기준

환경오염, 곡물자급률 하락 등과 같은 기존 농정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 성과창출의 한계와 R&D 총괄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출연연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관기술 접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 인력 또한 국가 전체수준의 1.1%에 불과하고 민간투자비중도 34.7%로 낮아<sup>3)</sup> 지속적인 R&D 활성화를 위한 토대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차 종합계획 개선방안에서는 이러한 1차 때의 단점들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핵심전략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내비쳤다.(별첨 1 참조) 세부적으로는 국정·농정철학을 반영한 중점 추진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현장문제 해결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타부처, 타기술 융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 추진방향

제 2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우선 농림식품 육성 중장기계획(2013~2022)에 따라 선정된 4대 분야 50대 핵심기술과 농정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현안별 농정방향<sup>4)</sup>을 고려해 향후 5년간 R&D투자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추진전략으로 R&D시스템 혁신,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중장기 R&D 활성화 토대마련,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 등을 제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업 체질을 개선해 생산,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농산촌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기반의 농업혁신을 통해 미래성장 산업화라는 비전을 이루는데 있다. 중장기계획 4대 분야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기반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등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여 R&D비중을 2013년 49%에서 2019년에는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부처 또는 부처 간, 중앙·지방 등의 농식품 R&D 정책조정 및 통합 등을 통하여 R&D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손에 잡히는 R&D성과창출을 위해 R&D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도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 현행 연구자 중심에서 현장 수요 중심 연구를 위해 농업인, 소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R&D투자를 실시하고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R&D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수요를 고려한 R&D기획을 강화하고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하며 민간 R&D참여확대를 위한 과제 평가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3) 2013년도 국가 R&D 투자대비 민간 R&D 투자비중은 77.9%인 반면 농림식품 분야 민간 R&D 투자비중은 2011년 35.1%, 2012년 36.6%, 2013년 34.7%로 나타났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2014) 등

마지막으로 외부 집단지성의 참여를 통한 타 분야 기술과 농업과의 융복합도 추진한다. 출연연(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등과 협업을 통해 ICT, 센서 등 타 분야의 앞선 기술을 접목하여 적은 연구비로 단기간에 질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국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농식품 기술경쟁력 제고와 선진기술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림업 부가가치액 33조원 달성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보유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을 2014년 76%에서 2019년까지 87%로 증대시키며, 농림식품 벤처 비중을 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향후 5년 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별첨 2 참조)

### 3. 세부 실행계획

#### 가. R&D 투자강화 및 선택과 집중

먼저 R&D투자 강화 방안으로 부청 전체 R&D예산 비중을 농식품 전체 예산의 1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sup>6)</sup> 또한 중장기 계획의 4대 중점분야(①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신성장동력 창출, ③안정적 식량공급, ④국민행복 제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R&D사업 조정과 신규기획 할 예정이다.

표 1. 4대 중점 분야 R&D 투자비중 (단위:%)

중점연구분야	2013년		2019년	증감
	투자(백만원)	비중(%)	비중(%)	
1.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0,244	14.2	20.4	+6.2
2. 신성장 동력 창출	138,740	16.4	20.1	+3.7
3. 안정적 식량 공급	93,314	11.1	14.5	+3.4
4. 국민행복 제고	61,194	7.3	10.0	+2.7
4대 중점 합계	413,492	49.0	65	+16.0
기타*	430,320	51.0	35	-16.0
합 계	843,813	100	100	-

※최고수준 도달기간 : 기술수준 평가 당시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우리 농업 기술이 도달하는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다.

5)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한-이스라엘 기술협력재단,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6) 2010년:4.9% → 2014년:5.3% → 2015년:5.5% → 2019년:10.0%

한편 농정과제 기반 핵심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정계획 및 FTA 등 농정현안을 고려하여 R&D 투자 4대 분야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우선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및 농촌 생활환경에 ICT를 융복합 하여 지능형 정밀 농업을 실현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위해서 할랄·코셔 시장 등 새로운 식품시장 개척 및 식생활 개선 등 농식품의 수출 산업화를 뒷받침하기로 했고 시장개방 대응을 위해 수출 전략품목의 안전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 곤충, 미생물 등 농생명 자원활용 신소재 개발,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농업분야 영향예측 및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촌현장의 애로사항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AI, 재선충 등 동·식물 전염병에 대한 신속방제 및 확대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등 고질적인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집중투자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산촌의 가치증진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나. 핵심기술 투자전략**

###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기술집약적 농식품 산업육성을 통해 연 100억 불의 농식품 수출액을 달성하여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부적인 추진 목표이다. 또한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미래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47.6조 원이던 농식품 부가가치 액을 2017년 51.8조 원, 2019년 56.5조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주요 연구분야를 구분하면 농산업 체질개선, 고부가가치 식품, ICT융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기술수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준 목표

(단위:%)

14대 부문	2014	2019	최고수준 도달*(년)
농산업 체질개선	75.1	90.7	('14) 5.7 → ('19) 3.5
고부가가치식품	79.1	92.7	('14) 5.1 → ('19) 3.8
ICT 융합	74.0	93.8	('14) 4.6 → ('19) 2.6

## 2)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

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 고품질·친환경 농생명 신소재 산업을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 및 종자강국의 꿈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미래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 자원 발굴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표 3.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수준 목표

(단위:%)

14대 부문	2014	2019	최고수준 도달*(년)
농생명 신소재	77.3	94.2	('14) 3.8 → ('19) 2.2
농생명 바이오 의약·미용	77.5	90.9	('14) 5.6 → ('19) 3.4
농생명 유전체	73.3	86.0	('14) 8.5 → ('19) 5.6
Golden Seed 프로젝트	70.9	87.0	('14) 8.8 → ('19) 6.2
농업·농촌 에너지	65.7	88.7	('14) 5.7 → ('19) 3.7

## 3)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전략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식량 자급률을 2015년 57%에서 2020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확립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곡물수급 불안정 해소,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생산기반 고도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기술을 개발하여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증대와 재배적지 이동 등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농산업 구현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제역·AI 등 국가적 재난 질병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병·해충 확산 등의 효율적인 대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4.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기술수준 목표 (단위:%)

14대 부문	2014	2019	최고수준 도달*(년)
식량자급률 제고	76.3	88.8	('14) 8.4 → ('19) 5.8
기후변화 대응	75.4	92.4	('14) 6.0 → ('19) 4.7
재해질병 방제	74.9	92.0	('14) 7.5 → ('19) 5.2

#### 4)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전략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농산촌 가치 증진을 통해 농업인 농촌생활 만족도를 2014년 43.8점에서 2019년 60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생활권을 도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표도 2013년 인당 8 $m^2$ 에서 2019년 8.7 $m^2$ 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원적 가치확산과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힘써 산림경영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체계 확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표 5.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기술수준 목표 (단위:%)

14대 부문	2014	2019	최고수준 도달*(년)
농업·농촌가치 제고	72.3	89.8	('14) 7.5 → ('19) 5.3
산림경영 고도화	71.1	86.0	('14) 6.1 → ('19) 4.5
안전한 먹거리생산	77.9	88.7	('14) 6.4 → ('19) 4.4

### 다. R&D 시스템 혁신

R&D 시스템 혁신은 R&D의 정책지원 및 현장문제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청 및 지방간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정책-R&D-현장을 연계하는 혁신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정책과 R&D현장을 연계한 농업혁신모델을 도입하고 농업 경영체의



R&D참여확대를 위해 민간 R&D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과제기획단을 구성하고 과제발굴연구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만들어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과제발굴연구회의 사례를 농식품 산업에 접목하여 농산업의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R&D 과제에 대한 조사, 발굴, 사전기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쟁형·개방형·시장지향형 R&D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대규모 또는 중점과제(5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 복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기획연구 평가를 거쳐 최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제고를 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ICT, 센서 등 타 분야의 앞서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팜 국산화, 농기계 긴급 개발 등 주요 협업분야를 선정해 중복투자 최소화와 투자효율화를 추진한다. R&D전주기에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지향형 연구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과제기획, 연구수행, 평가성과확산 등의 연구관리 전주기에 수요기업이 기획·관리·평가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유도하여 시장환경 변화가 고려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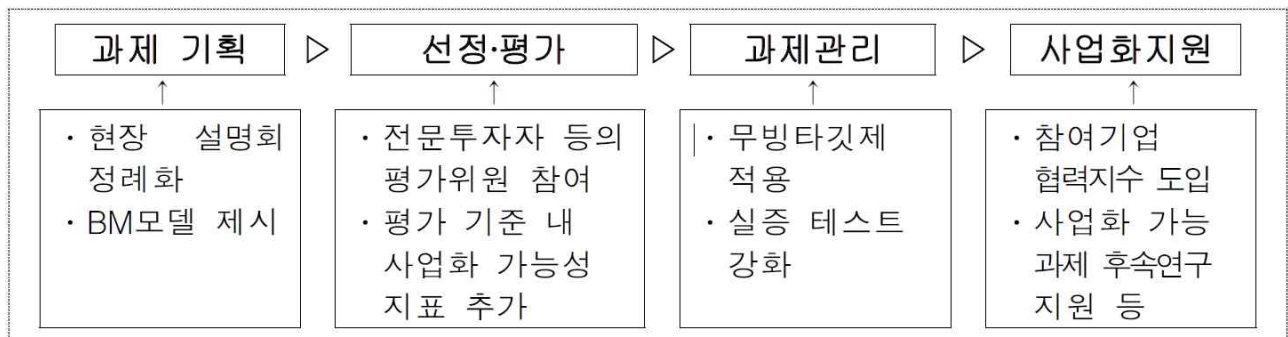


그림 2. 시장지향형 R&D를 위한 시스템 개선(안)

중앙과 지방 간 R&D협력체계 재정립을 위한 노력도 행해진다. 지자체가 농림식품 과학 정책을 수립할 시 부청의 참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R&D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연구사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역 R&D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작목별 연구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R&D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의 업체가 대학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D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조정, 심의 권한부여를 통해 R&D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농과위 전문위원회 역할 재설정을 통해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술전문위원회 별 농식품분야 미래 이슈 발굴을 정례화하여 R&D 정책 아이디어 Bank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선정해 기초부터 산업화까지 일관된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 R&D 관련 기관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R&D기획관리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책도 확충할 계획이다.

## 라.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진출 지원 등 농식품 분야 맞춤형 지원을 통해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었다.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는 R&BD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농식품 국가 R&D 중 약 82%(2014년)가 국유특허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전용실시를 늘려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등을 금액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를 활성화하여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이러한 평가비용 지원책을 통해 농산업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가치 평가비용은 건당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어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전문펀드(100억 원, 2014년)와 농식품 아이디어 펀드(120억 원, 2015년) 등 민간 자금을 매칭한 창업지원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 외 기술창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R&D(농기평), 자금(농금원), 창업보육(실용화재단) 등 창업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KTX역,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시제품 판매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가 어려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방문 및 창업보육을 컨설팅하는 제도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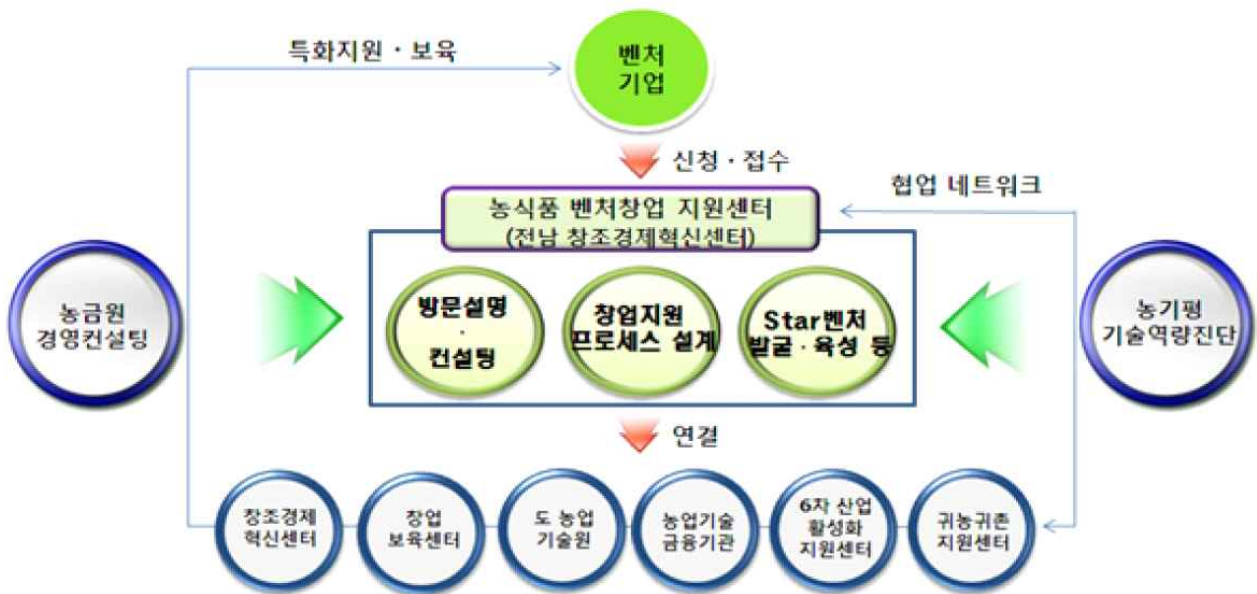


그림 3. 맞춤형 창업보육 경로 설계절차 및 역할(전남)

### 마. 중장기 R&D 활성화 토대 마련

중장기적으로 R&D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개발기술의 현장보급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농림식품 R&D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체 대상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담당하는 R&D 컨설턴트 양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2015년 6개소였던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ARC) 지원 사업을 2019년까지 9개소로 늘려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농산업체 취업 혹은 창업 시 장학금 등을 제공하여 농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R&D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자 단체 등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등을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 매칭비율인하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가칭 농식품 R&D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해 연구기관 선정 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림식품분야 민간 R&D 자체의 투자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시 인력구성 요건을 벤처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기준에서(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 벤처기업 기준으로(연구 전담요원 2명 이상) 바뀌기 때문에 농업법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역량 진단사업 확대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R&D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방침이다. 이미 2015년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기 때문에 기술코디네이터가 농식품 기업을 진단하는 기술역량진단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SN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농업기술 정보제공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하여 영농기술에 대한 민원을 단 시간 내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중 기술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해피콜 서비스를 추진하고 FRIS와 NTIS의 양방향 통합로그인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별첨 1>

## □ 1차 종합계획과의 비교

구분	제 1차 종합계획('10~'14)	제 2차 종합계획('15~'19)
추진배경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림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업 경쟁력 제고필요	R&D의 정책, 현장연계를 강화하여 농식품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필요
비전	지식기반형 일류 농림수산 식품산업 육성	과학기술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핵심추진전략	①R&D정책 종합조정체계 강화 ②수요자 중심 R&D 관리체계 개편 ③연구주체의 핵심역량 강화 ④민간투자 및 실용·산업화 촉진 ⑤지역 R&D 활성화 ⑥생산현장 기술보급 체계 고도화	①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②R&D 시스템 혁신 ③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④중장기 R&D 활성화 토대 마련 ⑤핵심기술 전략 투자
주요투자전략	7대 산업분야 20대 부문 (산업별 기술전략 추진)	농정연계 4대 중점분야 14대 부문 50대 핵심기술 (정책연계 기술전략 추진)

## □ 주요 개선방향

□ 국정·농정철학을 반영한 중점 추진분야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업별 기술전략</li> <li>■ 소액 백화점식 투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연계 기술전략</li> <li>■ 50대 핵심기술 중심 사업단 투자</li> </ul>
□ 현장문제 해결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중심 R&amp;D</li> <li>■ 연구 수행 중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문제 해결 중심</li> <li>■ 연구 성과(일자리 등) 중심</li> </ul>
□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타부처·타기술 융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생산 중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부처·타기술 융합 확대</li> </ul>

## <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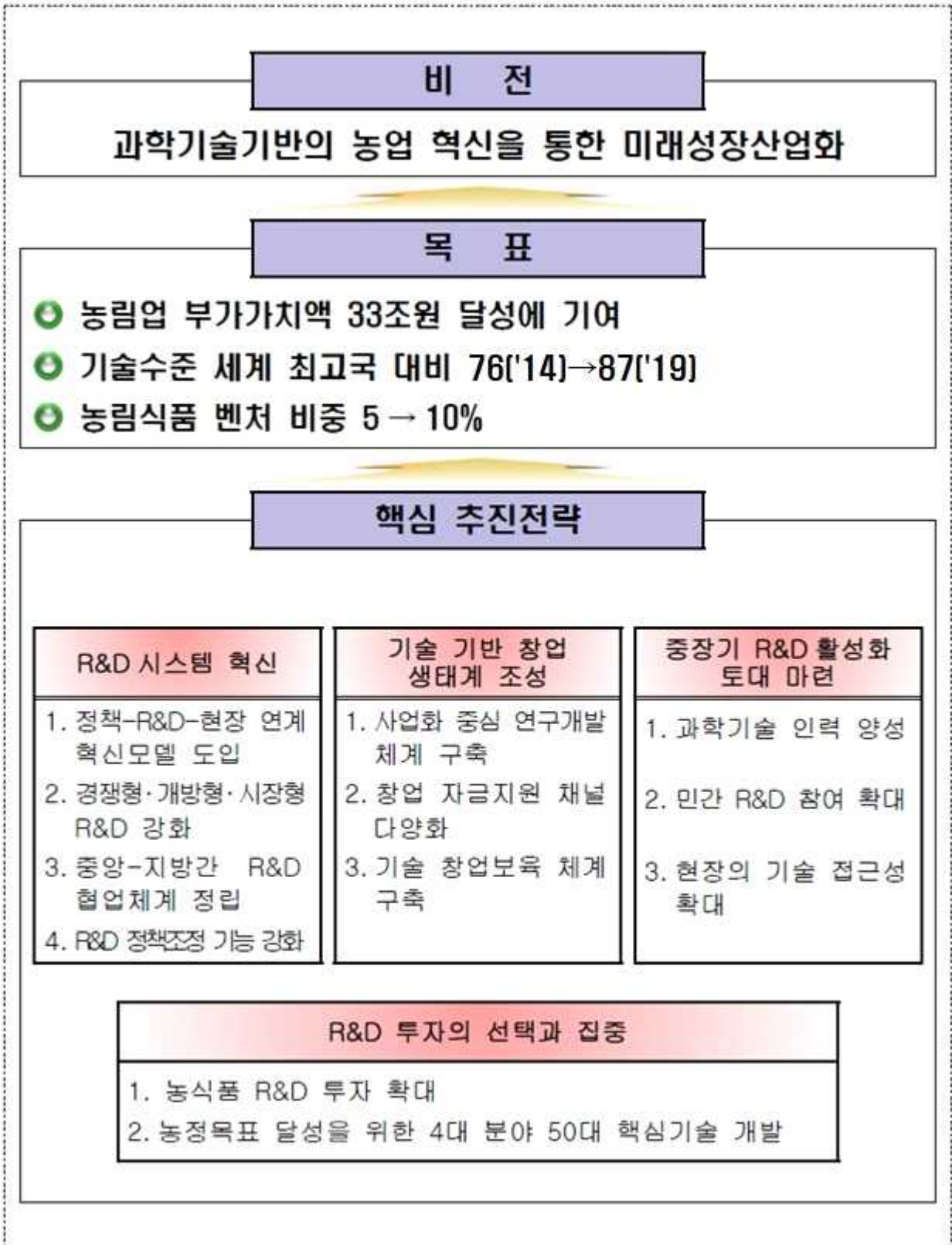


그림 1. 제 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의 비전과 목표